

##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통역이 주는 의미 - D대학교를 중심으로

윤 은 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최 성 규\*\*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 《 요 약 》

---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청각장애 대학생은 현재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통역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개별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유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통역의 종류에는 1) 수어통역, 2) 전문속기, 3) 문장 통역 도우미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이들의 요구로는 전공용어에 대한 새로운 수어가 조어되고 통역사들이 전공지식을 공유하고 또한 통역사들의 열정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통역은 세상을 이어주는 교량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셋째, 대학과 장애인 지원센터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수어통역사와 속기사 배치 인원 증가, 교수와 건청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그리고 장애학생을 위한 준비된 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통역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문화의 이해를 넘어선 소통과 동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 청각장애 대학생, 통역 서비스, 질적연구

---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언어·청각장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대구대학교 사범대학부설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skchoi@daegu.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리와 단절된 청각장애인에게 외부와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방법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특히 지식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그들이 받는 소통의 방법은 분명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Reading & Padgett, 2011).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대학입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제도’ 실시로 장애인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김천우, 2015; 한국 청각·언어 장애교육학회, 2012).

특히 통합교육의 영향으로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대학진학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영역 중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청각장애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2007년 5월 25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은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각장애 학생들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강영실(2004)은 개인의 조건이 열악할수록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 지원을 통한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 서비스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속기)이다.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D대학교 역시 2000년 9월에 전국대학 최초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전문수어통역사들을 배치하였다. 현재 D대학교의 통역서비스는 수어통역사 6명과 속기사 3명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론과 필수교양 등의 설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속기, 그리고 실기나 실습 등과 같은 활동적인 수업에서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체제는 타 대학교나 기관으로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옥철, 2010). 그러나 최근 수어통역과 전문 속기 지원의 확대라는 통계적 자료에 비하여 실제로 청각장애 대학생을 지원하는 대학교는 소수에 불과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

에서 백유순(2005)은 청각장애학생이 요구하는 의사소통 지원은 문자통역이 79.2%, 그리고 수어통역이 56.3%의 요구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에 한계를 보인다는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한기열(2006)은 지적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택진(2010)은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어통역서비스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수어통역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이었으나, 교수의 설명에 한정하고 청각장애 대학생의 입장은 전달되지 못하는 단방향적 통역의 한계, 수어통역사들의 수어 실력 부족, 그리고 통역사의 열정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통역서비스로 수어통역과 속기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대학 강의에서 그들의 학습 부적응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윤영(2010)의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어통역과 속기 지원 실태 연구에서도 강의자의 전달 내용이 많을 경우 수어통역사가 강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다든지 또는 수어통역사의 배경 지식 부족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수어통역은 시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수어를 보면서 필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으로 호소되기도 하였다.

속기지원에서도 학생도우미인 경우 강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지 못해 어려운 단어를 문장으로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속기사도 역시 속기하는 방법과 능력에 따라서 수월성에 차이를 보인다. 임의의 속기사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특성에 맞게 쉽게 설명하는 반면, 전문용어를 사전식으로 표현하여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연구 방법적 차원에서 청각장애 대학생의 통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연구가 김미선(2008), 송주영(2008), 양윤영(2010)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김유진과 윤병천(2008), 김형일(2012), 백유순(2005), 이효자, 이정현, 홍성두(2011) 등에 의해 양적연구로 청각장애 대학생의 통역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통역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통역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만족도와 지원 전략을 위한 연구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의미와 함께 문화적 이해를 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Reading과 Padgett(2011), 그리고 Henning 등(2011)은 삶의 본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언어는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교육에서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단순히 몸 동작에 불과하다는 Li 등(2015)의 연구는 통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Cawthon 등(2015)도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와 비교할 때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수어통역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으나, 대학교에서는 수어통역의

제공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Babcock(2011)는 통합교육의 영향으로 속기지원을 받는 청각장애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각장애학생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속기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대학교에서 수어통역과 속기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삶의 이해를 언어적 특성과 함께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각장애 대학생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대한 능력이 탁월하다. 다만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통역은 일방적 지원에 불과하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누적되어야 학습 효과가 배가되고,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다. 따라서 보는 것에 대한 지원의 의미, 즉 수어 또는 속기 등을 통한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이 청각장애 대학생의 자아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Marschark 등(2013)은 지적하였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통역서비스에 대한 의미가 강의 내용의 전달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통역서비스에 부여되는 현상을 파악하여 통역서비스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이해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이며,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징은 <표 1> 과 같다. 참고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이름	연령 (학년)	성별	청력 손실시기	출신고등학교유형	대학 입학전형	가족 중 청각장애 유무	수어를 배운 시기
A	23(2)	남	4세	특수학교	장애인 특별 전형	유(부모)	4세
B	23(4)	여	1세 이전	일반고	일반전형	유(부모)	1세 이전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계속)

이름	연령 (학년)	성별	청력 손실시기	출신고등 학교유형	대학 입학전형	가족 중 청각장애 유무	수어를 배운 시기
C	21(2)	남	1세 이전	특수학교	장애인 특별 전형	유(형)	7세
D	24(5)	남	1세 이전	일반고	일반전형	무	대학 2학년
E	23(3)	남	13세 이후	일반고	장애인 특별 전형	유(부모)	대학 2학년
F	23(4)	여	4세 이전	일반고	수시	무	대학 입학

## 2. 자료 수집 및 분석

### 1) 인터뷰를 위한 준비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란 일종의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화, 또는 유목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한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의도적인 대화이다(유기웅 외, 2014).

면담의 형식에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비형식적인 대화, 피면담자가 개방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들이 사전에 개발되어 면담 중에 사용되는 반구조화된 면담, 주어진 척도나 사지선다형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야 하는 구조화된 인터뷰 스케줄에 의한 면담이 있다(이용숙, 김영천, 1998). 이 중에서 반구조화된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처럼 미리 만들어진 면담지를 사용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권순우, 권순복, 2006; 임민섭, 2010).

본 연구에서는 D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에 재직 중인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작성하였다. 면담할 내용 작성에 있어 ‘장애’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질문은 배제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주된 연구이므로 반구조화된 질문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역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한 주된 질문은 연구 참여자가 받고 있는 통역서비스,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효과적인 통역서비스, 통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 주는 통역의 의미와 대학 측이나 장애인 지원 센터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받고 있는 통역서비스에 대한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면담 실시

질적 연구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선별한다. 그리하여 미리 계획된 질문내용과 형식에 맞추어서 관심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유기웅 외, 2014).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6명의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선별되었으며 이들에게 먼저 질문 내용을 지면으로 제시하였다.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인터뷰 방법을 통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어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의미 전달의 어려움이 느껴질 경우는 필담의 방법도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통합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연구 참여자일 경우 구화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때는 구화로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평균 면담시간은 약 30~40분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 1시간 넘게 면담이 진행되었다. 한 사람당 1번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추가 면접이 필요한 경우 2~3정도의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주로 면담을 나눈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로 선택하였으며 주로 학교 식당, 외부 음식점, 연구자의 연구소 등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10월 첫째 주에서 2016년 5월 둘째 주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면담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내용들은 현장에서 정리 및 메모(filed note)하였다.

## 3) 전사 자료 분석

각 개인과 면담이 끝난 후 자료를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들은 연구 목적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전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코드화 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코드화한 내용을 부호화하고 동일한 범주들로 나누어서 3개의 주제에 대한 중주제 및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3개의 주제는 다양한 소통을 위한 요구와 통역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세상을 향한 그들의 외침이다. 본 주제는 면담을 한 6명의 청각장애 대학생의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전사한 자료들로부터 범주화된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것이다.

## 3.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박사과정 동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D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3인과 본 연구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확인법(유기웅 외, 2014)을 사용하여 자료의 분석과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와 함께 검토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받고 있는 통역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통역이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의 면담 결과를 통해 그들이 느끼는 통역서비스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소통’이란 단어를 본 연구에 쓰고자 한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받고 있는 통역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소통을 위한 요구, 통역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세상을 향한 그들의 외침 등으로 범주화 하였다.

#### 1. 다양한 소통을 위한 요구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통역은 수어통역과 전문속기, 문장 통역 도우미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통을 위한 요구들도 몇 가지 제시되었는데 이들이 말한 내용을 통역의 현실과 쉬워질 수 있는 소통으로 나타났다.

##### 1) 통역의 현실

###### (1) 수어통역

전 수어통역만 받습니다.(C)

전 수어통역을 받지만 어쩔 때는 전문속기 지원도 받습니다, 수학시간은 사실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어통역이 제일 맞아요, 수어통역은 상호작용이 잘 되어서 바로 질문할 수 있고 분위기를 알게 해 줘요, 토론할 때는 속기보다 유용해요.(A)

연구 참여자 C는 면담 당시 1학년 학생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부담이 없고 교양과목이 주로 많기 때문에 수어통역만으로 과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A는 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A는 수어통역과 전문속기 지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학의 경우 푸는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므로 굳이

수어통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어통역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잘되어서 바로 질문할 수 있고 분위기를 알게 해 준다는 것, 토론할 때 유용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저는 과목에 특성에 따라 달라요, 명사처럼 수어에 없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속기를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수어를 선호해요, 문자언어에 비해 수어도 또 하나의 언어니까 더 확실하게 전달이 잘 되는 거 같아요, 국어 시간은 전문속기나 문장 통역 도우미가 와서 통역을 해 줍니다.(B)

연구 참여자 B의 경우 주로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지만 국어 과목의 경우는 전문 용어가 많은 이유로 속기로 통역 받는 것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수어로 전문 용어를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화로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문법적인 용어를 속기로 지원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수어를 또 하나의 언어로 생각하고 본인이 농인이라 전달 받는 부분에서 더 전달이 잘 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B의 면담으로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농인의 모국어가 수어이고 이를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한테는 수어통역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수업 특성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이론과 실전이 혼합되어서 수어통역으로 바로바로 전달받는 게 더 좋고, 아니면 이론 설명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전문속기로 내용을 다 정확하게 아는 것, 또 내용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요, 수어통역이 더 잘 맞는 이유는 음 아무래도 전문속기는 글만 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딱딱한데 수어는 생동감이 있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고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F)

F는 수어통역과 전문속기 중 수어통역을 더 선호하였다. 수업 특성에 따라 다른 하나 실전일 경우에는 수어통역이 더 효과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어는 생동감이 있어서 더 집중이 잘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F의 경우 일반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수어를 배운 경우이다. F는 수어를 배운 후 자신의 표정이 더 밝아지고 풍부해 졌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는다고 하였다. 수어에서는 눈과 얼굴, 머리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문법의 한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감정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하며, 대화를 통제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Sherman & Padden, 1989). 본인도 수어를 사용하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표정의 변화가 생긴 거 같아서 좋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전공이나 수업 방식에 따라 선호하는 통역 방식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수어통역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어통역의 생동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건청인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이런 맥락에서 수어통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문속기

전 전문속기와 수어통역을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전문속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어통역은 대충대충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전문속기를 통해서 수업의 이해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D)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통역서비스는 전문속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깊이 있고 철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인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게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어통역을 받게 되면 그 수업 시간에만 통역을 받고 끝나 버리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온전히 그 과목에 대한 수업내용을 이해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전문속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수업내용을 속기한 파일을 받아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농인들이 그 파일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는 수어통역서비스 보다는 전문속기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인 통역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E)

연구 참여자 D와 E는 수어통역과 전문속기 모두 지원을 받지만 D와 E는 전문속기가 더 수업의 이해를 높인다고 하였다. 전문속기의 경우 전문속기한 내용을 메일로 전송받아 재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는 수어통역의 장점으로 선생님의 표정과 손동작 그리고 몸짓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전달 해주시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어통역의 단점으로는 수업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습할 때 어려움이 있고 PPT 수업 시 PPT에 집중하다 보면 수어통역을 놓치게 되는 것을 단점으로 들었다. 그리고 속기의 단점으로 역동성 부족해서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고 그리고 금방 피로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비록 면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연구 참여자 E는 수어통역과 전문속기의 장·단점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 2) 쉬워질 수 있는 소통

### (1) 새로운 수어 제작

통역을 받다보면 새로운 단어에 대한 수어가 없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새로운 수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C)

또 수어로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는 수학,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싶은 장애학생에게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A)

C는 수어로 통역할 때 새로운 단어가 수어로 표현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에 대한 수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A에게도 나타났는데 수학 과목에서 수학 용어를 일컫는 수어가 조어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 (2) 전공지식을 가진 통역사

우선 통역하시는 분이 전문지식이 없다면 수어통역 하는 것이 많이 힘들습니다, 수학은 통역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필기를 보며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어요, 수학은 차라리 친구들의 풀이과정 필기를 보는 것이 더 나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풀이과정을 써 놓으면 그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촬영한 것을 보며 혼자 공부해요.(A)

국어는 문법적인 용어가 많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수어통역으로 부족합니다, 오히려 전문속기를 받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B)

연구 참여자 A와 B는 수어통역사가 전공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과목에 대한 전공지식이 없다면 수어통역이 어렵다고 했다. 김유진의 2008년 연구에서도 같은 전공 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 요구 역시 통역사의 전공 지식 함양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A는 현재 수학 수업이 괴롭긴 하 나 버티고 있다고 했고 수학 통역은 OT 이후로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 (3) 열성적인 자세를 가진 통역사

열심히 해주시는 통역사분들에게는 감사하지만 가끔 게으르거나 열성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시 받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다, 가능하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통역사분들에게 부탁이라기보다는 좀 더 열성적으로 통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D)

D의 경우 열성적으로 통역을 해 주지 않는 통역사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그는 교수가 수업과 관련 없는 개인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통역사에게 통역을 요구했으나 통역사가 통역을 하지 않고 학생과 1대1로 개인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D가 수업과 관련이 없어도 궁금하기 때문에 통역을 요청했을 때 통역을 해 주기는 하였지만 열성적이지 못한 통역사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 2. 통역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느끼는 통역의 의미는 저마다 다양하였지만 학업에 도움을 주고 세상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들이 말한 통역의 의미를 '언어의 교량적 역할'과 '미래로 향한 포석'으로 나타냈다.

### 1) 언어의 교량적 역할

#### (1) 나의 공부 도우미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통역사가 없었으면 많이 답답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 거 같아요.(C)

C에게 있어 수어통역의 의미는 공부를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이었다. C는 통역을 통해 학업과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통역사가 있음으로 본인의 수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C는 수업을 이해하는데 수어통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2) 보이는 언어이자 들려주는 언어

강의 시간에 ppt 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닌 교수님의 말씀을 보이게 하고 회의 하는 모임에서는 교수님이 아닌 학생들의 말을 보이게 하고 내 말을 소리로 답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통역이 없었다면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나에게 대학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꼭 다녀야 하겠지만요.(A)

A는 수어통역을 교수와 학생들의 말을 보이게 하는 존재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언어(수어)를 소리로 답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A는 통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말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통역을 통해 대학에서의 강의와 소통하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나타냈다. 이는 그들에게 통역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A에게 있어서 통역은 대학이라는 곳과도 소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학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 (3) 귀와 입이 되어 주는 서비스

제 귀와 입이 되어주는 고마운 서비스입니다, 제가 원하는 수업을 통역해주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통역서비스가 없었다면,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때처럼 수업시간 내내 선생님의 입모양만을 쳐다보느라 진이 빠졌을 테고, 매번 친구들에게 필기한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다녔을 것입니다.(B)

B에게 있어 수어통역 역시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B역시 통역을 통해 수업과 소통하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중·고등학교 때와 다른 대학생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때 수어통역의 지원 부재로 받아야 했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통합 환경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도 통역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 2) 미래로 향한 포석

### (1) 충격으로 다가온 통역-자신감과 미소를 되찾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만 있다 보니 시간 낭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3, 고3 때에는 점수가 중요하다 보니 도움도 점차 줄어들게 되어 혼자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학교를 왜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에서 수어통역 및 속기를 받음으로써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정보를 끝이끝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학생들이 웃을 때 나도 뭔지 알고 따라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뭔지 모르고 따라 웃기만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습니다.(D)

D의 경우 역시 중·고등학교 때의 외로움을 호소하며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따라 웃어야만 했던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볼 때 D의 학교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대학에 와서 통역서비스를 받음으로 수업의 통역이 충격이었다는 표현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통역은 다양한 의미로 접근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듯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대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건청인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반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D에게 통역은 다른 청각장애인들에 비해 충격적인 의미로 다가 옴을 알 수 있었다.

## (2) 건청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 서다.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

저는 처음에 대학교에 진학할지 바로 취업을 할지 매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수업 내용도 혼자서 듣기에 매우 벅했는데 그런데 중·고등학교 보다 어려운 대학 수업을 제가 과연 도움 없이 혼자서 잘 들을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통역서비스 지원 제도는 저에게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일반 학생들과 차별 받지 않고 똑같이 배우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있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통역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저는 보상심리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한국 가족·사회 복지 정책 연구자가 되기 위해 현재 대학원을 고려하고 있는 꿈을 가지게 해 준 저에게는 통역서비스가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E)

E뿐만 아니라 통합 환경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통역서비스에 대해 매우 큰 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는 통합 환경에서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힘들게 학업 생활을 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학교생활을 통해 장래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했다.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상기하며 대학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지 많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대학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를 받음으로 건청 학생들과 차별 받지 않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게 됨으로써 E는 또 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다. E에게 통역은 건청인과의 동반의 의미를 넘어 본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춧돌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면담 후 E와 진학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학원 진학과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진학을 위해 다른 교수와 면담 날짜도 정하는 등 E 나름대로 장래에 대한 설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이런 연구들 때문에 면담하는 일이 귀찮고 불편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본인도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지 궁금하다' 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해주었다.

## (3) 장애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우선 통역서비스를 생각하면 제가 대학시절에 누렸던 최고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저 혼자서 부딪혀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흥미도 잃고, 수업을 왜 들어야하나 생각까지 하고, 수업은 저에게 있어 40분 동안 멍 때리거나 딴 짓하거나 다른 공부하는 그런 여가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대학에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속된말로 신세계가 열린 거죠, 이전에는 몰랐던 교수님의 재치나 수업방식,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까지 다 생생하게 전해져오니 마치 여기서 장애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저도 수업을 똑같이 받을 수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능력으로 수업을 이해하고 그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매료된 것 같아요, 수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니 공부에도 더 정진하기 쉽고 재미를 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통역지원서비스는 제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려야 할 교육을 장애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여기서든 그 어떤 장애도 없었어요, 그냥 제 노력만 있을 뿐...(F)

F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 의견은 학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업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통역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장애를 넘어서고 있었고 본인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 나은 꿈을 가지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F와의 면담에서 대학에서 받는 통역서비스를 통해 '내 능력으로 수업을 이해하고 그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말에서 마음이 무거웠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 때문에 이전의 연구나 검사 결과들은 건청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보고된 것이 많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진정 건청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통한 성취로 인해 그들은 더 넓게 그리고 더 깊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장애도 없었어요. 그냥 제 노력만 있을 뿐...' 이란 말을 통해 F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벌써 넘어선 듯하였다.

## 3. 세상을 향한 그들의 외침

D대학교는 장애인 지원 센터를 갖춘 종합 대학으로서 그나마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들은 대학과 장애인 지원 센터에 바라는 부분이 있었다. 그들이 바라는 부분을 여전히 계속되는 갈증 부분과 마음으로 장애인을 봐 주기를 바라는 부분, 그리고 순발력 있는 학교, 준비되어 있는 학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 1) 여전히 계속되는 갈증

### (1) 아직도 부족한 수어통역사와 전문속기사

많은 학생 수에 맞춰 통역사 선생님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역을 원하는 학생은 많지만, 통역사 선생님이 부족하여 모든 학생이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저 또한, 몇몇 수업은 통역사 선생님 없이 일반 학생이 와서 문자를 타이핑해 주는 통역서비스 이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서비스 받았습니다.(B)

통역사에 대한 감정은 없지만 통역사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통역사를 더 많이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C)

전문속기사 정말 좀 늘려주세요, 수어통역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속기사를 더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속기사 수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수어통역 선생님들께서 통역을 많이 하시다보니 통역사가 정보를 제공할 때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어통역사는 6명이고 전문속기사는 3명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문속기사도 수어통역사 공평하게 수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

현재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는 '1학년 우선 통역서비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통역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제가 장애 학생 지원센터 측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수어통역사와 전문속기사 고용을 증대시켜서 학년에 제한 없이 모든 농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통역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E)

타 연구의 통역사의 불만에 대한 연구 결과에 비해 D대학교의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어통역사에 대해 그리 큰 불만은 없고 통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수어통역사의 수적인 부분에서는 불만족이 나타났다. 현재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은 40여명 정도이다. 장애인 지원 센터에서 수어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총 6명, 그리고 속기사 3명으로 학생 수 대비 통역사 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강의 시간 겹침이나 통역사 예산 부족 등으로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수어통역이 필요할 때 즉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일반 학생의 문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는 수어통역 시 수어통역사의 많은 수업으로 인해 통역의 능률적인 면에서 정확성이 떨어짐도 지적하였고 또한 전문속기사가 더 충원되지 않는 이유가 교수

들의 전문속기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수어통역이 타이핑 소리도 없고 즉시 통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어통역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는 말을 했다. D는 교수들이 전문속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 전문속기사의 충원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E는 1학년 우선 통역서비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고학년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고 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분명 본인이 원하는 통역서비스를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제14조). 대학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고학년에게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는 일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 (2) 무늬만 통역사

국어시간에 전문속기사가 배치되면 다행이지만 어쩔 땐 문장 통역 도우미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달하는 내용의 질이 떨어지는 편이에요.(B)

청각장애 부문에서 설명하자면 학생도우미제도가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문자통역서비스는 정말 농학생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인데, 타자수가 빠른 게 중요한데, 센터 측에서 그런 것도 시험 보지 않고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나 타자수가 너무 느린 학생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 농학생들 입장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테스트나 자격 조건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F)

B는 문장 통역 도우미가 내용을 전달할 때 정확하지 않고 요약문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문제점을 F가 말해주었다. 전문속기사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문장 통역 도우미(학생 도우미)가 투입되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였다. 이 제도에 대해 청각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 될 만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타자수가 생명인데 타자가 너무 느린 학생이 배치된다든지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 배치되어 이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도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이들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라 하겠다. 전문속기사가 배치되는 것이 맞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문자통역 도우미를 배치할 때 F의 말대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에 맞추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도우미가 이들에게 배치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마음으로 장애인을 볼 수 없나요?

(1) 교수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일반교수님이 장애를 아직 모르신 것 같아요.(A)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어통역사나 속기사 선생님께서 함께 들어오시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그리고 속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농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하므로 교수님의 수업내용을 녹음을 해야 하는데 녹음에 대해서 꺼림칙해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수어통역이나 전문속기를 받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도우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학생들이 수업내용을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타이핑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여 뒤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장애에 대해서 무조건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E)

청각장애인들은 그들이 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는 농인의 특징들이 있다(김경진, 2007). 이것을 ‘농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 교수들이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해 부족이 수업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타이핑 소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여 지고 본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강의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교수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다. E는 장애에 대해 무조건 배려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2)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대학교 교수님과 학생 중에 몇 사람은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쉬워요. 청각장애학생이 왜 속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속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리 양보가 의무는 아닌데 속기특성상 앞에 앉아야 전기콘센트도 꽂아서 노트북 충전도 시킬 수 있고 교수님 말씀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그냥 무작정 앞에 앉아버려서 뒤에서 힘들게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학생이 빨리 가서 자리 잡으면 되긴 하지만 아무리 빨리 가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B)

우리 장애학생들도 통역서비스가 필요한데 속기사가 타이핑하는 소리가 거슬린 다거나 학생 외의 통역선생님 같은 다른 신분의 분이 들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를 다른 데로 비켜달라거나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학생들도 다른 학생이랑 똑같이 수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같이 참

여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D)

1, 2학년 때 장애와 관련이 없는 타과 수업과 교양수업 때 저에게는 속기나 수어통역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학생들이 역차별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속기선생님이랑 통역선생님이 잘 설명해주셔서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중요하고 꼭 받아야 될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에게는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속기서비스와 관련해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파일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D)

건청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기의 특성상 노트북 사용이 필수적인데 콘센트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앞자리 확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의 경우 구화가 가능한 학생이기 때문에 앞자리라면 교수의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보청기를 통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다. D도 농학생의 알권리에 대해 주장하면서 건청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변화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또한 전문 속기의 경우 속기사가 강의 내용을 타이핑하면 그 자료를 청각장애인에게 메일로 보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청각장애인이 보면서 따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건청 학생의 경우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다. D는 이런 건청 학생들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각장애라는 장애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 부분도 건청 학생들이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구화 학생들이라면 한 번 썸은 꺾어 볼 수 있는 경험인데 구화 학생들 대부분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학생이 구화 학생이 말을 잘한다고 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구화 학생도 엄연히 들리지 않는 농인인데 이 점에 대해서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장애별 도우미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E)

장애인의 인식과 관련해서 건청 학생들에게 농인에 대한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났다. 일반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특수교육 운영계획, 2016). 그러나 장애별 특성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거 같다. 다른 장애 영역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 장애의 경우 특징과 그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 3) 순발력 있는 학교, 준비되어 있는 학교

#### (1) 장애학생들을 위한 소수 정예 수업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있으면 좋은데 인원수가 부족하고 교수님이 바쁘시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혼자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수어로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는 수학,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싶은 장애학생에게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A)

일반인과 함께 수업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본인 스스로가 인원수 부족이나 교수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 또한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다. 장애학생들 나름대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그 요구들이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수와 장애인 지원센터, 대학 등에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이 A의 면담에서 나타났다.

#### (2) 상시 통역사 배치 및 학교 행사에 통역사 배치

긴급한 통역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특강이나 면접 등 농학생에게 갑자기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간을 항상 3일 전까지만 긴급통역신청을 받아요, 농학생이 정보수집에 느린 편이어서 그 기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측에서도 당장 도와주러 갈 사람이 없는 실정이고 서로 곤란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어서, 이에 대해 따로 도우미를 두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F)

대학에서는 여러 장애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관해서 각각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우미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순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D대 몇몇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 때마다 항상 농학생을 위한 통역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팀원들하고 잘 친해지지 못했고, 정보수집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것뿐만 아니라 특강 등 여러 행사에서도 그런 준비가 미흡해 보여요, 지금은 되게 많이 지원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가끔씩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때, 장애 학생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경우를 고려 안 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셔서 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F)

F는 학교생활에서 갑자기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가 없어서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 통역의 경우 3일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규칙 때문에 정보를 접하고 나서 통역을 신청하면 그 기간에 맞지 않아 놓친 적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말 통역이 필요할 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험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상시 도우미 같은 제도를 통해 원활한 통역을 받을 수 있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몇몇 프로젝트에 참가했을 때 통역서비스가 없어 불편을 겪었다고 하였다. 특히 팀원들과 잘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과 정보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역사 요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학교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농대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비장애인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장애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곳인데 정직원이나 조교로는 농학생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농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D대의 모토에 맞게 장애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F)

F는 D대학교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장애인 지원 센터에 농인이 정직원이나 조교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장애인 지원센터는 장애 학생을 위한 곳인데 왜 농인은 취업할 수 없는지... F의 말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벽임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F는 장애의 벽을 넘었지만 사회는 아직 장애의 벽을 넘지 못함을 새삼 느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이들이 받고 있는 통역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통역서비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다양한 소통과 더불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통역의 의미와 세상을 향해 그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소통으로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통역의 종류에는 1) 수어통역, 2) 전문속기, 3) 문장 통역 도우미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더 나은 소통의 세계를 위해 요구하는 것들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전공 용어에 대한 새로운 수어가 빨리 조어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전공과목을 통역하는 분들이 전공 지식을 갖추고 통역 해 주기를 원했다. 또한 통역사들이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통역에 임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통역은 넓은 의미로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언어의 교량적 역할’로 1) 나의 공부 도우미, 2) 보이는 언어이자 들려주는 언어, 3) 귀와 입이 되어 주는 서비스 등의 의미를 두었고, ‘미래로 향한 포석’으로는 1) 충격으로 다가온 통역-자신감과 미소를 되찾다. 2) 건청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 서다.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 3) 장애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등의 의미를 나타냈다. 이들이 표현하는 통역의 의미를 보았을 때 이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며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세상을 향한 그들의 외침으로 그들이 대학과 장애인 지원 센터에 바라는 부분을 3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여전히 계속되는 갈증에서는 (1) 아직도 부족한 수어통역사와 전문속기사, (2) 무늬만 통역사 등의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 마음으로 장애인을 볼 수 없나요? 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 세 번째 순발력 있는 학교, 준비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1) 장애학생들을 위한 소수 정예 수업, (2) 상시 통역사 배치 및 학교 행사에 통역사 배치, (3) 농대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첫째, D대학교의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받는 통역은 수어통역, 전문속기, 문장 통역 도우미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택진(2010)과 양윤영(201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목에 따라 통역의 선호 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과목의 경우는 전문 용어가 많은 이유로 오히려 전문속기로 통역 받는 것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수학의 경우 통역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전공에 따라 선호하는 통역 방식이 달라서 최적의 통역을 지원하려면 과목의 특성에 맞게 통역의 형태도 다르게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인들의 새로운 수어에 대한 갈망은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일이다. 수어 역시 일반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생성-변화-발전-소멸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수화가 많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명확한 수어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알고자하는 욕구와 배움의 갈증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이해된다. 그리고 ‘한국수어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인제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수어언어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수어가 어서 빨리 조어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통역자의 전공 지식 함양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는 양윤영(2010)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내용이다. 이 문제는 수어 통역 시 청각장애 대학생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 진다. 통역의 경험이 있는 본인도 강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역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대학에서 전공별로 통역사를 배치하는 데는 분명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많은 수의 통역사들을 확보하여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으면 한다.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역사들이 통역에 들어가기 전 어느 정도 강의에 대한 숙지를 한 후 통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다. 물론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통역사들의 분주함과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어서 빨리 모색하는 일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통역이 주는 의미는 연구자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다양하였다. 이들은 통역을 통해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본인의 장애와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통역으로 인해 이들은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통합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온 청각장애인 경우 그 의미가 특수학교 출신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했다. 이들에게 통역서비스는 충격이자 신세계였으며 건청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해 준 존재였다. 최성규(2016)의 연구에서 농인 조경건은 ‘장애와 인간 신분의 벽은 평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았다’라는 말을 했다. 조경건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서 미군을 통해 평등의 사상을 알게 되었다. 그는 평등이 인간 신분의 벽을 허무는 일임을 말하였다.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통역은 건청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의 구분 또한 없게 한다. 통역을 통해 장애라는 벽은 허물어 질 수 있다. 특히 교수와 학생들의 말을 보이게 하고 내 말을 소리로 답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표현한 내용을 보면서 통역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보여 지는 언어와 소리로 답해 줄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통역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문화의 이해를 넘어선 소통과 동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 중, 고등학교의 수어통역사 배치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다. 정책적으로 통합 교육을 이야기 하면서 정작 청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었을 때 그들을 위한 통역사는 배치되지 않는 형편이다. 수업시간 내내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느라 진을 빼며 친구들의 필기 내용을 요청하는 내용이나 학교생활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었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에만 통역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도 통역사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일반 학교 교사의 통역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통역사 배치에 관한 제도를 정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한나와 최상배(2015)의 연구에서도 수어통역사가 공교육의 제도권으로 들어 오지 않은 초, 중학교의 일반학교의 상황에서 농부모가 개인적으로 수어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교육청을 상대로 동분서주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이 나타나 있었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사’는 정보접근을 위해 꼭 보장되어야 하는 보조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보접근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으로 통합이라는 환경을 말하기에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도 수어통역사의 충분한 배치에 관한 요구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들과 요청이 계속 되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D대학교에서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을 통해 그 내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통역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학교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통역의 경우 방학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안정적인 직장이 생길 경우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수어통역사의 배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속기사 역시 이런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통역사나 속기사의 경우 기본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역사의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이직의 한 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는 교육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등 의사소통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충분한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서비스든지 재정이 가장 문제인 거 같다. 충분한 재정이 확보된다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교에 속한 통역사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청각장애 학생들은 만족할 만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제 학교 측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고학년이 될수록 본인들이 원하는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1학년 우선 통역서비스 배정은 필요한 일이라는 하나 전문속기사의 충분한 배치로 이 부분 역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표현되고 있는 문장통역도우미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일인데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불편함과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교수와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이다. 연구자 역시 시각장애인 한 분과 같은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 그 수업에서 시각장애인 동료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각적인 자료 제시에 있어 그 분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애를 전공하는 연구자도 타 장애인과의 수업에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수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그들을 위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그들이 강의실에서 받은 차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속기사나 수어통역사 대동시 꺼리는 교수, 교수의 강의를 녹음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지 않는 교수, 속기사의 타이핑 소리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가 방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승기 외, 2016). 건청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수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본인의 강의에 들어오는 장애학생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업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열어주는 것도 재고해 볼 수 있겠다.

건청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한 연구 참여자는 청각장애 학생이 통역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청각장애를 전공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역차별’이란 표현이 솔직히 충격이긴 했다. 하지만 건청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청 학생들도 강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교수와 협의 후 녹음을 통해 강의 내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건청 친구들과 필기를 공유하듯이 청각장애인과 친구가 된다면 그들의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처럼 장애인을 무조건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하는 자세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D대학교의 청각장애 대학생의 통역이 주는 의미에 대한 연구로 연구 참여자가 D대학교에 국한되어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타 대학의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통역이 주는 의미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적은 학생의 면담으로 인해 범주에 한계가 있었다. 통역서비스를 받고 있는 타 대학의 청각장애 대학생들과 더 많은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참여시켜 더 많은 면담 자료를 통해 범주화 시키는 일 또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역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에 따른 후속 연구로 전공에 따른 수어 통역 유형에 대한 연구와 통역을 하는 통역사 입장, 그리고 속기사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통역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연구할 필요도 있겠다.

셋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통역서비스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통합 환경에서의 초, 중, 고등학교의 통역 실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통합 환경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원활한 통역사 지원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일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영실 (2004). **장애인 복지의 이해**. 서울: 신정.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6). **201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서울: 교육부.
- 권순우, 권순복 (2006). 청각장애인의 대학원 생활과 직장생활 적응 환경에 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5(2), 115-131.
- 김경진 (2007). 한국의 농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미선 (2008).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연구**, 15(2), 121-136.
- 김옥철 (2010).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유진, 윤병천 (2008). 대학교육수화통역의 개선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77-95.
- 김천우 (2015). 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고찰: 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2), 1-19.
- 김형일 (2012). 장애대학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요구 조사 연구. **한국특수아동학회**, 14(3), 165-190.
- 백유순 (2005). 장애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요구 및 지원실태와 만족도 조사: 청각장애 대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51-169.
- 송주영 (2008). 고등교육 청각장애 학생들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N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양윤영 (2010). 청각장애대학생의 수화통역과 속기 지원 실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 대학원.
- 유기웅, 정중원, 김영석, 김한별 (2014).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승기, 윤상용, 서동명 (2016). **장애인복지론**. 서울: 신정.
- 이용숙, 김영천 (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응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한나, 최상배 (2015). 이중언어 농학생의 동반입학 지원을 위한 창조적 소수의 도전. **특수 아동교육**. 17(2). 285-313.

- 이효자, 이정현, 홍성두 (2011).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지원권에 대한 장애 대학생의 인식 조사: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6(1), 25-43.
- 임민섭 (2010). 농학교에서 농교사의 교직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정택진 (2010). 청각장애대학생의 수화통역서비스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 최성규 (2016). 농인 조경건의 생애사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0(4), 41-64.
- 한국 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2012). *청각장애아동 교육*. 서울: 양서원.
- 한기열 (2006). 농 대학생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 모형 개발.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Babcock, R. (2011). Interpreted writing center tutorials with college-level deaf students. *Linguistics & Education*, 22(2), 95-117.
- Cawthon, S., Leppo, R., Jin, J. G., & Bond, M. (2015). Accommodations use patterns in high school and post secondary settings for students who are d/Deaf or hard of hearing.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60(1), preceding 9-23.
- Henning, M., Krügeloh, C., Sameshima, S., Shepherd, D., Shepherd, G., & Billington, R. (2011). Access to New Zealand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eaf: A pilot study. *Disability & Rehabilitation*, 33(25/26), 2559-2566.
- Li, D., Gao, K., Wu, X., Xong, Y., Chen, X., He, W. Li, L., & Huang, J. (2015). A reversed-typicality effect in pictures but not in written words in deaf and hard of hearing adolescent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60(1), preceding 48-59.
- Marschark, M., Morrison, C., Lukomski, J., Borgna, G., & Convertino, C. (2013). Are deaf students visual learners? *Learning & Individual Differences*, 25, 156-162.
- Reading, S., & Padgett, R. (2011). Communication connections: Service learning and American Sign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Audiology*, 20(2), S197-S202.
- Sherman, W., & Padden, C. (1989). The deaf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deaf people. In Sherman Wilcox(Ed.), *American deaf culture: An anthology*. Burtonsville, maryland: Linstok Press.
- Strauss, A. L.,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g: Sage.

The Study on Values of the Interpretation Service  
for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the case of D university

**Yun, Eun-Hee**

Daegu University

**Choi, Sung-Kyu**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investigat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services and to identify its values for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is research aims to hav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pretation services and intends to provide the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offering the better service for them. We conducted face to face interviews with six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who have received the interpretation services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eam. The results show that: (a)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have received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 professional stenographer service, and sentence interpretation helper service; (b) The students want to have the prompt development to create professional terminologies, to have professional interpreters knowledgeable for their disciplinary areas, and to have interpreters being passionate for their professional interpretation; and (c) The students consider the professional interpretation as a bridge that guides them to the real world. As a function of a language bridge, the interpretation service can be valued as a helper for study, visible and hearing language, and a replacement of both ears and mou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terpret system for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s not mere language transfer, it is their lif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terpretation services, qualitative research

---

논문 접수: 2016. 06. 07 심사 시작: 2016. 06. 10 게재 확정: 2016. 07. 09